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총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애들아, 여러분 혹시 높은 놀이기구를 타본 적 있나요? 처음에는 위가 으스스 떨리고 무서운데, 용기 내서 올라가 보면 멋진 풍경이 보여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 근처에 왔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정찰대를 보내어 땅을 살피게 했지요. 12명의 정탐꾼 중 가나안의 풍요를 보고 돌아온 사람들은 “젓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에요!”라고 말했지만, 그 중 10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커서 우리는 우리 키 같지 못해요. 성벽도 높고 무섭습니다!”라며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학교나 친구 관계, 새로운 도전 앞에서 가끔 두려움을 느껴요. “나는 못 할 거야”,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고 주저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탐꾼 여리고와 거인 앞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라고 말했지요.

우리도 여리고 앞에 선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작은 도전 앞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라고 외치며 용기 내어 나아가요!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찬 양

최고의 선물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땅을 보면서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제 마음이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여러분이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